



# 활동 1 부사에 담긴 마음

이 책에는 짧지만 강한 말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데, 설마, 혹시, 그래도, 하물며, 마침내 같은 말들입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말은 통하지만, 들어가면 마음의 색깔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번에는 책 속 부사에 담긴 마음을 찾아보고,  
짧은 말 하나가 문장의 느낌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부사와 어울리는 느낌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차라리 ·  | ·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
| 그런데 ·  | · 거의 큰일이 날 뻔한 느낌          |
| 하마터면 · | · 다른 것보다 이것이 낫겠다는 느낌      |
| 설마 ·   | · 믿기 어렵고 놀라는 느낌           |
| 혹시 ·   | · 오래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느낌       |
| 마침내 ·  | · 그럴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느낌 |

2. 다음 문장에서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그 부사가 어떤 느낌을 더해 주는지 써 보세요.

**문장: “차라리 돌이 되고 싶어.”**

이 부사가 더해 주는 느낌: \_\_\_\_\_

3. 다음 문장에 어울리는 부사를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보세요.

〈보기〉 하필이면, 그래도, 어차피, 차라리, 하마터면

- ① 계단에서 뛰어가다가 \_\_\_\_\_ 넘어질 뻔했다.
- ② 많고 많은 날 중에 \_\_\_\_\_ 소풍 가는 날 비가 왔다.
- ③ 숙제를 다 못 했다. \_\_\_\_\_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려고 한다.
- ④ 시험을 망친 것 같다. \_\_\_\_\_ 이미 끝난 일이니 다음을 준비해야겠다.
- ⑤ 거짓말을 해서 들킬까 봐 불안해하느니, \_\_\_\_\_ 솔직하게 말하고 혼나는 게 낫다.

4. ‘하물며’는 “그것도 그런데,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은 말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하물며’가 담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작은 씨앗도 꽃을 피운다. 하물며 나도 조금씩 자랄 수 있다.

- 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
- ② 나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마음
- ③ 꽃이 되고 싶다는 마음
- ④ 씨앗이 싫다는 마음

5. ‘마침’과 ‘마침내’를 구별해 보고,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넣어 보세요.

**마침**은 알맞은 때에 딱 맞게 일이 일어날 때 씁니다.

**마침내**는 오래 기다린 끝에 일이 이루어질 때 씁니다.

- ① 우산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_\_\_\_\_ 엄마가 데리러 오셨다.
- ② 오래 연습한 끝에 \_\_\_\_\_ 줄넘기 백 번을 성공했다.
- ③ 배가 고팠는데, \_\_\_\_\_ 간식 시간이 되었다.
- ④ 며칠 동안 기다린 편지가 \_\_\_\_\_ 도착했다.

6. 다음 문장을 읽고, 부사가 나타내는 마음을 골라 보세요.

(1) “**하필이면** 발표하는 날 목소리가 안 나왔다.”

- ① 반가운 마음    ②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③ 편안한 마음

(2) “**아무리** 불러도 친구는 돌아보지 않았다.”

- ① 많이 해 보았지만 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    ② 드디어 성공한 기쁜 마음    ③ 처음부터 포기한 마음

(3) “**언젠가** 나도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

- ① 지금 당장 하기 싫은 마음    ②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    ③ 이미 끝났다는 마음

7. 다음 두 문장을 읽고, '그래서'와 '그래도'가 들어갈 때 각각 뒤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 보세요.

A. 친구가 떠났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되었다.

B. 친구가 떠났다. 그래도 나는 기다렸다.

→ '그래서'가 주는 느낌: \_\_\_\_\_

→ '그래도'가 주는 느낌: \_\_\_\_\_

8. 아래 문장에 주어진 부사를 넣어,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장을 다시 써 보세요.

### 그래도

친구와 다투어서 마음이 속상했지만 먼저 사과해 보기로 했다.

→ \_\_\_\_\_

### 어차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 조금씩 연습해 보기로 했다.

→ \_\_\_\_\_

### 마침내

며칠 동안 기다리던 편지가 오늘 우리 집 우체통에 도착했다.

→ \_\_\_\_\_

9. 다음 부사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_\_\_\_\_

그렇다고: \_\_\_\_\_

아무튼: \_\_\_\_\_

## 활동 2

# 차라리 돌이 되고 싶어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는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친구들 곁으로 가고 싶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돌이 되고 싶어.”

아이는 왜 돌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아이가 말하지 못한 마음을 천천히 헤아려 봅시다.

1. 아이는 왜 하필 ‘돌’이 되고 싶었을까요? 돌의 특징과 연결하여,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써 보세요. (예: 돌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버려서,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

---

---

2. 혼자 있는 아이가 “차라리 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_\_\_\_\_”

3. 나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차라리 ○○이 되고 싶어.” 하고 생각한 적이요.

- 나는 너무 \_\_\_\_\_ 때,

“차라리 \_\_\_\_\_ 이/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 그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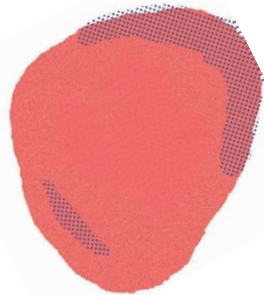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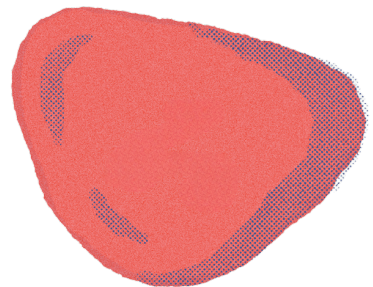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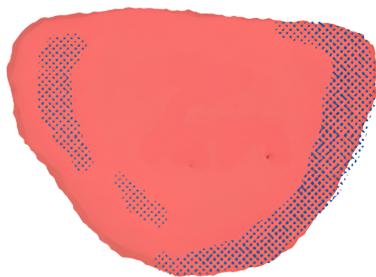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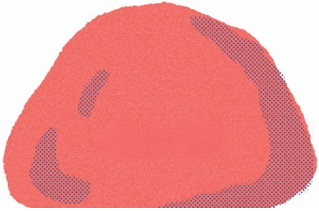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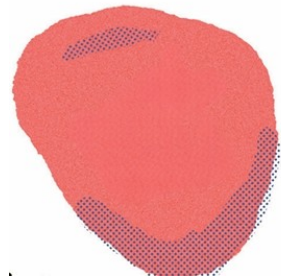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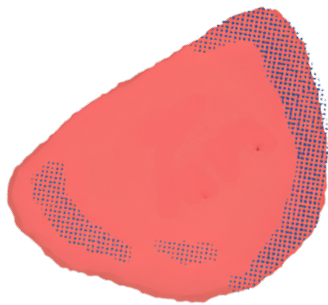
### 활동 3

## 표정 수집하기

그림책 속 돌은 다양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림책 속의 다양한 돌의 표정을 아래 돌 그림에 그려 보고, 그때의 상황도 함께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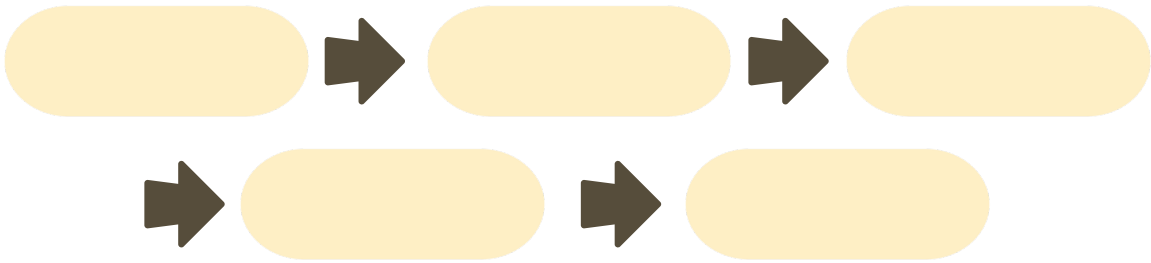
눈이 내리는 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 활동 4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속 돌과 고양이는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여러 일을 겪으며 천천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도, 함께 지내다 보면 조금씩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과정과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1. 고양이를 향한 돌의 마음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돌이 고양이에게 느꼈을 감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써 봅시다.



2. 처음에는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 봅시다.

---

---

3.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며 조금 가까워지게 된 계기나 사건이 있나요? 기억나는 장면을 써 봅시다.

---

---

4. 지금은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 봅시다.

---

---

## 활동 5

# 거꾸로 보는 세상

이야기 속 돌은 고양이 때문에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세상을 거꾸로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평소와 다르게 어떤 것들이 보일지 상상해 봅시다.

1. 세상을 거꾸로 보고 난 후 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 왔나요?

상황의 변화:

-----

마음의 변화:

-----

2. 거꾸로 세상을 바라본 뒤,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몸을 숙여 다리 사이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운동장이나 화단처럼 안전한 곳에서 거꾸로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물구나무서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 몸은 어떤 느낌인가요? (예: 어지럽다, 눈앞이 이상하다)

-----

-----

(2) 거꾸로 바라보니 평소에 보던 것들이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눈에 띄는 것 하나를 골라  
써 봅시다. (예: 구름이 바닥에 깔린 솜처럼 보인다.)

-----

-----

(3) 거꾸로 세상을 본 뒤, 다시 원래대로 바라보세요.

처음 볼 때와 지금 볼 때,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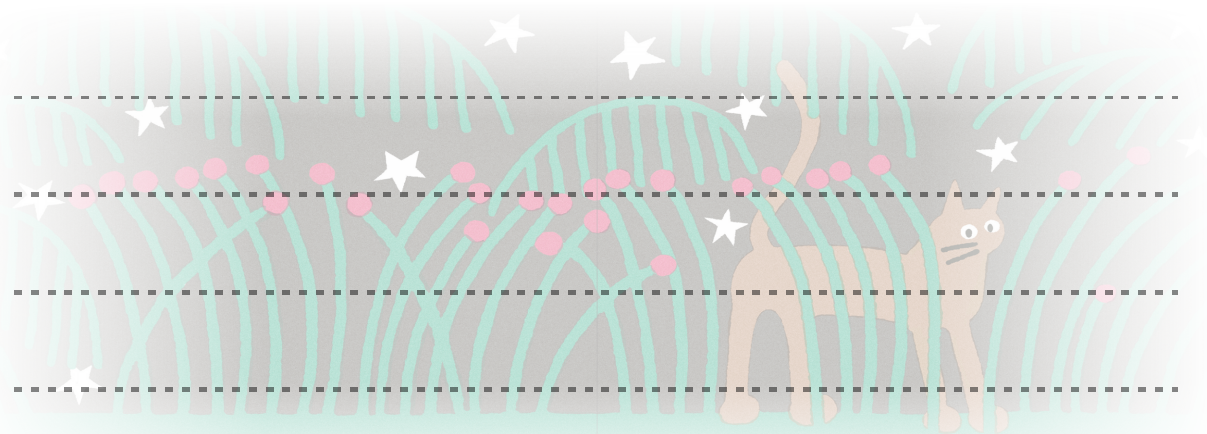
## 활동 6

# 이야기 이어 쓰기

이야기 속 아이는 돌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도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아이와 고양이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만의 생각을 더해 다음 이야기를 이어 써 봅시다.  
이야기에서 가장 보여 주고 싶은 장면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제목: 《

》



# 해답

## <활동 1: 부사에 담긴 마음>

- 차라리 → 다른 것보다 이것이 낫겠다는 느낌  
그런데 →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하마터면 → 거의 큰일이 날 뻔한 느낌  
설마 → 믿기 어렵고 놀라는 느낌  
혹시 → 그럴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느낌  
마침내 → 오래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느낌
- 동그라미 칠 단어: 차라리  
이 부사가 더해 주는 느낌: 지금 상황이 너무 싫거나 힘들다는 느낌
- 하마터면, 하필이면, 그래도, 어차피, 차라리
- ①
- 마침, 마침내, 마침, 마침내
- ②, ①, ②
- '그래서'가 주는 느낌: 친구가 떠난 일이 원인이 되어, 내가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도'가 주는 느낌: 앞의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느낌.
- 친구와 다투어서 마음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먼저 사과해 보기로 했다.  
- 어차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 조금씩 연습해 보기로 했다.  
- 며칠 동안 기다리던 편지가 마침내 오늘 우리 집 우체통에 도착했다.
- 어차피 : 어차피 비가 오니까 집에서 책을 읽기로 했다.  
그렇다고 : 친구가 조금 늦었다.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아무튼 : 길을 잘못 들었지만, 아무튼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다.

## <활동 2: 차라리 들이 되고 싶어>

- 둘은 입이 없어서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마음은 아마도,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괜히 거절당할까 봐 걱정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돌처럼 가만히 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 "들이 되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나는 네가 혼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 <활동 4: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낯설다) > (피하고 싶다 / 불편하다) > (당황스럽다) > (신기하다 / 궁금하다) > (편안하다 / 좋아지다 / 친구 같다)

## <활동 5: 거꾸로 보는 세상>

- 상황의 변화:** 고양이가 다시 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고양이가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고양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둘은 고양이가 다가오는 일을 전처럼 무조건 싫게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세상을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한 뒤,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네?"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